

어벤저스 끝나지 않았다

“I’m inevitable.” 자신을 필연적인 존재라 말하는 타노스에게 아이언맨은 말했다. “And..., I am Ironman.” 이렇게 아이언맨은 어벤저스 역사상 최고의 명대사를 남기며 인류를 구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마블 시리즈. 그 중심에는 토니 스타크, 즉 아이언맨이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는 캡틴아메리카, 블랙 위도우와 함께 어벤저스 멤버로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

글 김지현 객원기자 jihyunsports@@mtn.co.kr

※ 기사에는 2세대 어벤저스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어벤저스: 엔드게임'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겐 스포일러일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1세대 어벤저스를 이끌었던 중심인물, 아이언맨과 캡틴아메리카.

마블 스튜디오의 사장 케빈 파이기는 지난 4월 15일 '어벤저스: 엔드게임' 기자 간담회에서 “어벤저스: 엔드게임”을 기점으로 기존 영웅이 사라지고, 새로운 영웅이 탄생한다”고 말했다. 앞선 3명의 영웅이 역사와 기억 속으로 사라지면서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리더와 영웅이 나올 전망이다.

‘어벤저스: 엔드게임’ 후반부에 일부 장면으로 보여준 복선을 통해 알려진 어벤저스 2세대 시작은 1세대 마지막 영화이자 최근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예정이다.

비브라늄 방패는 누구 손에

‘어벤저스: 엔드게임’에서 캡틴아메리카는 샘 윌슨(팔콘)에게 캡틴아메리카를 상징하는 비브라늄 방패를 넘기며 은퇴를 선언한다. 방패를 든 샘 윌슨은 캡틴아메리카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며, 2대 캡틴아메리카로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사실 2대 캡틴아메리카 후보는 여럿이었다. 우리에게 ‘스티브 로저스’가 가장 익숙한 캡틴아메리카다. 하지만 마블코믹스에는 여러 명의 캡틴아메리카가 있다. 이 중 영화에 등장하는 버키 반스(윈터솔저)는 6대 캡틴아메리카.

카, 샘 윌슨은 7대 캡틴아메리카다. 이 둘이 가장 강력한 2대 캡틴아메리카 후보로 떠올랐지만 새로운 인물도 등장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리고 팬들은 버키 반스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았다. 하지만 2대 캡틴아메리카 자리는 결국 샘 윌슨에게 돌아갔다.

그렇다면 스티브 로저스는 자신의 절친인 버키 반스를 두고 왜 샘 윌슨에게 2대 캡틴아메리카 자리를 내줬을까.

첫 번째 이유는 두 사람이 히어로가 되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샘 윌슨은 미국 공군 제58구조대대 소속의 파라레스큐 항공구조사 출신이다. 반면 버

키 반스는 하이드라에게 개조당해 수많은 암살과 테러를 저지른 테러리스트다. 국가를 수호하는 이미지를 가진 캡틴아메리카에 버키 반스보다 샘 윌슨이 더 적합해 보인다.

두 번째 이유는 버키 반스가 스티브 로저스와 마찬가지로 현대에 표류하고 있는 ‘과거 인물’이란 점이다. 소련은 윈터솔저로 개조된 버키 반스의 노화 방지와 안정적인 세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임무가 없을 땐 냉동 상태로 두고 필요할 때만 해동해 임무를 지시했다. 이에 버키 반스 역시 스티브 로저스처럼 현재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스티브 로저스는 오랜 과거에서 온 자신이 캡틴

아메리카로 활약하면서 느꼈던 이질감을 절친인 버키 반 스에게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 이유로는 윈터슬저를 연기한 배우 세바스찬 스탠과 마블의 남아있는 계약 횟수를 들 수 있다. 그는 마블과 총 9편 계약을 맺었는데 현재까지 촬영한 영화는 6편이다. 그의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남은 3편은 자신의 과오를 청산하고, 잘못도 바로잡으며, 캡틴아메리카로 활약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스케줄이다.

새로운 브레인이 필요

“이 세상엔 새로운 아이언맨이 필요해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예고편에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가 외친다. 사고 현장에서 스파이더맨을 본 경찰들은 “이제 당신이 아이언맨이 되는 건가요?”라고 묻는다. 또한 피터 파커가 토니 스타크처럼 선글라스를 벗는 장면을 선보이고, 토니 스타크가 만든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를 장착하고 있다.

스파이더맨이 자신의 멘토인 아이언맨의 뒤를 이어 새로운 어벤져스의 브레인이 되려고 한다. 마블 원작에서 피터 파커 역시 ‘파커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과학자로 활약한다. 천재성은 물론 직업도 토니 스타크와 비슷하다.

특히 스파이더맨은 마블에 등장한 이후 줄곧 아이언맨과 연결됐다. 토니 스타크는 스파이더맨 즉 피터 파커를 어벤져스 멤버로 영입한 장본인이다. 그에게 스파이더맨 수트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지원하기도 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도 토니 스타크는 다시 돌아온 스파이더맨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지으며, 그와 진한 포옹을 했다. 이처럼 둘의 끈끈한 관계는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의 빈자리를 대신할 강력한 후보임을 대변한다.

여성 히어로가 이끄는 2세대 어벤져스

마블 스튜디오의 사장 케빈 파이기가 지난 3월 18일(미국 현지시간) ‘캡틴마블: 오피셜 무비 스페셜’ 인터뷰에서 ‘2세대 어벤져스’ 리더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제 캡틴마블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리더가 될 것”이라며 “이는 곧 2세대 어벤져스에서 캡틴마블이 리더를 맡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영화계에는 유색인종 캐릭터를 백인으로 바꾸는 행위인 ‘화이트워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요즘 영화계 추세에 따라 마블은 인종차별, 성차별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나아가 마블은 주체적인 여성 히어로 캐릭터에 주목하면서 캡틴마블을 등장시켰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각각 아이언맨(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팔콘(안소니 마키), 캡틴아메리카(크리스 에반스)를 연기한 배우들.



2세대 어벤져스의 리더가 될 캡틴마블.

고, 그를 어벤져스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로 만들었다.

하지만 팬들은 2세대 어벤져스 리더로 캡틴마블이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캡틴마블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파괴력은 어벤져스 내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할 만큼 엄청나다. 우주선을 혼자서 박살내고, 타노스와 일 대 일 대결을 할 때도 밀리지 않는다. 힘만 생각하면 리더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캡틴아메리카가 어벤져스 내에서 가장 강력한 힘보다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리더가 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캡틴마블은 캡틴아메리카만큼 뛰어난 리더십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새로운 시작

캡틴마블이 2세대 어벤져스 리더라면 서브리더는 어떤 영웅들로 구성될까. 케빈 파이기는 지난 5월 26일 미국 연예전문매체 위갯디스커버드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캡틴마블을 리더로 언급하며, “두 번째 리더 자리는 ‘블랙팬서’와 2대 캡틴아메리카가 된 ‘팔콘’이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등장한 ‘Political Correctness’, 즉 편견 섞인 언행을 하지 말자는 사회적 운동이 마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세대 어벤져스 리더로 여성 히어로인 캡틴마블을, 흑인인 팔콘(2대 캡틴아메리카)과 블랙

팬서를 서브리더로 지정한 것을 보아 마블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세 명의 히어로 외에 등장할 2세대 어벤져스 멤버는 누구일까. 16만 구독자를 보유한 영화 전문 유튜버인 ‘무비트립’은 “어벤져스 2세대 멤버로 유력한 멤버와 유력하지 않은 멤버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력한 멤버로는 캡틴마블을 중심으로, 팔콘과 블랙팬서, 스파이더맨, 호크아이, 헐크, 워머신, 버키, 앤트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멤버로 닥터스트레인지와 스칼렛 위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닥터스트레인지는 소서러 슈프림이라는 직위를 갖고 임무를 수행해야 해 어벤져스로서 활약이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스칼렛 위치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며 “그녀가 다시 어벤져스로 활약할 수 있을 만큼 회복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여서, 가능성은 있지만 유력하진 않다”고 부연했다.

아이언맨과 캡틴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마블 신드롬’을 일으킨 세 영웅이 어벤져스를 떠났다. 이제 캡틴마블을 비롯해 블랙팬서와 2대 캡틴아메리카인 팔콘을 중심으로 2세대 어벤져스가 새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1세대 어벤져스의 영광을 2세대 어벤져스가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로운 어벤져스의 브레인으로 활약할 스파이더맨과 마블에서 스파이더맨 역할을 연기한 배우 톰 홀랜드.

